

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

여론속의

# 여輿론論

2018. 11

#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

---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  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현안조사-국정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,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.
-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## 운영책임

## 박종선 수석부장

전화 | 02-3014-0085  
e-mail | have21c@hrc.co.kr

## 기획조사

##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  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## 국정지표

## 오승호 차장

전화 | 02-3014-0167  
e-mail | shoh@hrc.co.kr

## 목 차

# CONTENTS

---

|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|----|
| 주요 조사결과 ..... | 4  |
| 1. 현안조사 ..... | 7  |
| 2. 국정지표 ..... | 14 |
| 3. 조사개요 ..... | 23 |

## 현안조사 : 한일 관계

1

-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. 이에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장관 등 일본 정부관계자들이 강하게 반감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. NHK가 9~11일 일본의 성인남녀 1,215명을 대상으로 유·무선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'한국 대법원이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'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%가 "납득할 수 없다"고 답했으며,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% 였습니다.
-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정치권을 넘어 한국 연예인의 일본방송 출연 제재 등 일반국민에게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, 한국리서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응답자의 84%가 현재 한일 관계가 '나쁘다'고 평가했습니다.
- 일본에 대한 우리국민의 감정 온도 역시 냉랭합니다. 한국리서치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주요 5개국(북한, 중국, 러시아, 일본, 미국)에 대한 감정 온도를 매달 측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미국, 러시아, 일본 순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5개국 중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-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82%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, 일본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80%를 상회했습니다.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해당 기업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%였습니다. 최근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이 2017년 착용했던 원폭 티셔츠(광복티셔츠)를 문제 삼아 일본방송 출연을 취소 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80%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.
- 최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여행이나 일본제품 구매,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 이용이 줄어들 것(크게 줄어들 것이다+다소 줄어들 것이다)이라는 응답도 60%를 상회했습니다.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%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.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해결(76%), 독도문제(75%), 일본군 위안부 문제(73%)를 꼽아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와 영토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## 국정지표 :

###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, 정책 평가, 경제/안보인식

-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5%로 전월(62%) 대비 7%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. 지난 달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연령대별로 20대, 지역별로는 부산/울산/경남,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.
-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(원칙과 소신, 소통, 민생 안정, 위기상황 대처, 통합 노력, 공직 인사) 모두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. 지난 달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주요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, '대북 정책'의 긍정 평가가 63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외교 정책'(62%), '보건 의료 정책'(59%), '사회 안전 대책'(48%), '복지 및 분배 정책'(48%), '환경 정책'(44%), '교육정책'(38%), '주거 및 부동산 정책'(33%), '저출산, 고령화 대책'(30%), '일자리 및 고용 정책'(30%) 등의 순이었습니다. 지난 달 대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.
- 경제인식지수는 -44로 지난 달(-37) 대비 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20대, 지역별로는 수도권, 직업별로는 판매/영업/서비스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. 올해 5월 이후 지난 달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국가안보 지수는 +15로 지난 달(+29) 대비 1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60세이상, 지역별로는 인천/경기,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. 지난 달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## 일러두기

---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여론속의

# 여輿論論

CHAP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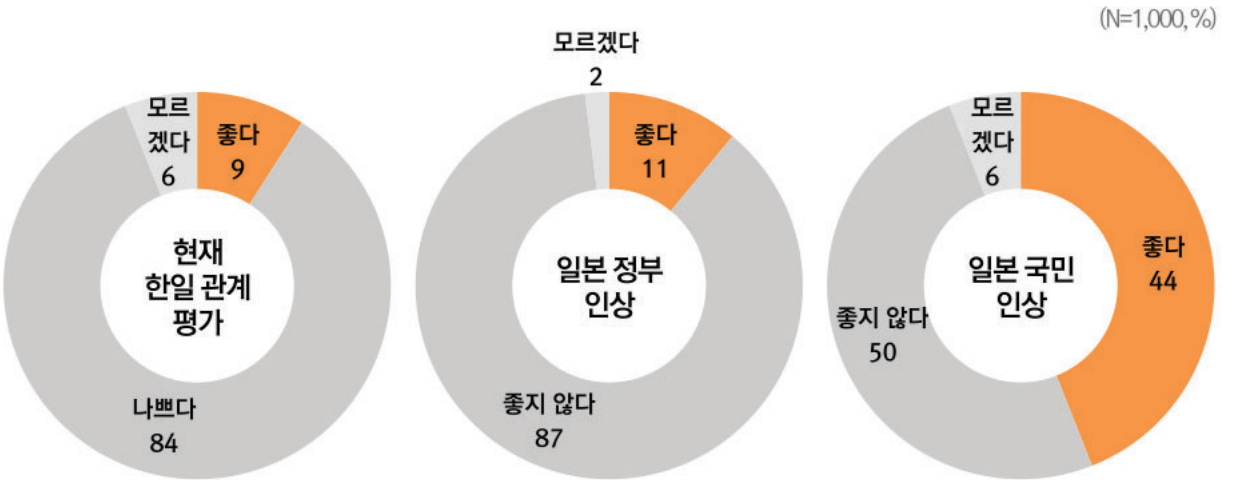
현안조사  
한일 관계

# 01

## 현안조사 1) 한일 관계 평가

**현재 한일관계가  
좋지 않다는 인식이  
지배적**

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84%가 '나쁘다(매우+나쁜 편이다)'고 평가했으며 '좋다(매우+좋은 편이다)'는 응답은 9%에 불과했다. 이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구분하여 평소 인상을 물어 보았다. 일본 정부에 대해 '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(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+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)'는 응답은 87%에 달했다. 반면, 일본 국민에 대해 '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(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+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)'는 응답은 50%로 일본 정부에 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인상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.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.



(N=1,000, %)

| Base=전체   | 사례수 (명) | 현재 한일관계 평가 |     |      |     | 일본 정부에 대한 인상 |          |      |     | 일본 국민에 대한 인상 |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|         | 좋다         | 나쁘다 | 모르겠다 | 계   | 좋은 인상        | 좋지 않은 인상 | 모르겠다 | 계   | 좋은 인상        | 좋지 않은 인상 | 모르겠다 | 계   |
| 전체        | (1,000) | 9          | 84  | 6    | 100 | 11           | 87       | 2    | 100 | 44           | 50       | 6    | 100 |
| <b>성별</b>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|
| 남자        | (497)   | 11         | 83  | 5    | 100 | 14           | 85       | 1    | 100 | 50           | 46       | 4    | 100 |
| 여자        | (503)   | 7          | 85  | 7    | 100 | 8            | 89       | 2    | 100 | 38           | 54       | 8    | 100 |
| <b>연령</b>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|
| 19-29세    | (175)   | 15         | 73  | 12   | 100 | 9            | 87       | 4    | 100 | 42           | 48       | 10   | 100 |
| 30-39세    | (173)   | 16         | 76  | 8    | 100 | 14           | 84       | 2    | 100 | 48           | 45       | 8    | 100 |
| 40-49세    | (203)   | 8          | 84  | 8    | 100 | 9            | 89       | 2    | 100 | 36           | 58       | 6    | 100 |
| 50-59세    | (201)   | 7          | 88  | 5    | 100 | 11           | 87       | 1    | 100 | 45           | 51       | 4    | 100 |
| 60세 이상    | (248)   | 4          | 96  | 1    | 100 | 12           | 88       | 0    | 100 | 49           | 48       | 3    | 10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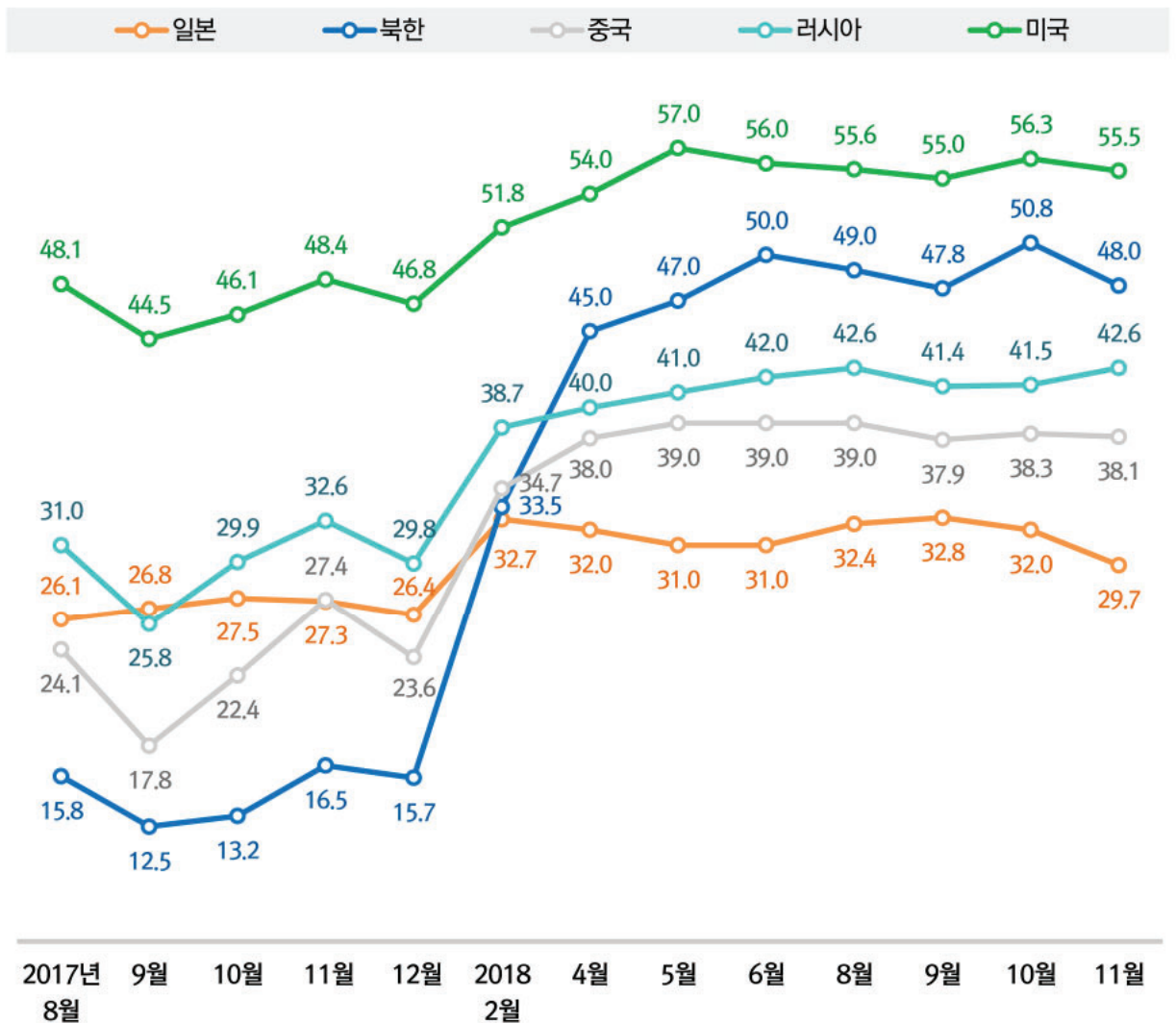


**주요 5개국 중  
일본에 대한 감정온도가  
가장 낮아**

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온도는 주변 5개국 중 최하위이었다. 한국리서치에서는 2017년 8월부터 북한, 중국, 러시아, 일본, 미국 5개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매달 측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미국, 러시아, 일본 순으로 높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5개 중 가장 낮았다.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,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데 반해, 계속되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**Q**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.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,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.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.

(N=1,000,도)



# 01

## 현안조사 2)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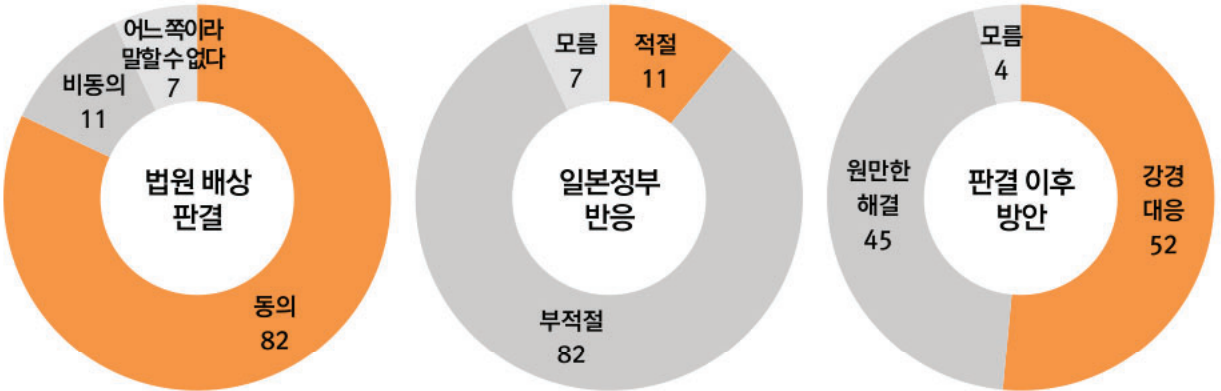
**법원의 배상판결에 동의,  
일본정치권의 반응은  
부적절**

**배상하지 않을 경우  
강경대응과 원만한 해결  
여론 반반**

응답자의 82%가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. 일본 정치권에서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2%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.

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해당 기업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%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45%로 우리 국민여론은 강경대응과 원만한 해결 반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.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재이상(56%)과 진보성향(63%)에서 높았으며, 60세 이상 고연령층(57%)과 보수성향(57%)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

(N=1,000, %)



(N=1,0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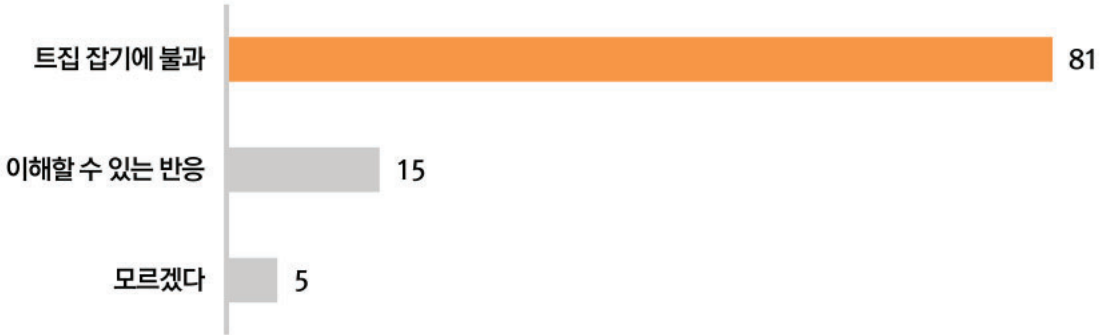
| Base=전체     | 사례수 (명) | 법원 배상 판결 (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) |     |             |     | 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 반응 |     |    |     | 배상판결 이후 방안 |        |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| 동의                      | 비동의 | 어느쪽이라 말할수없다 | 계   | 적절                   | 부적절 | 모름 | 계   | 강경대응       | 원만한 해결 | 모름 | 계   |
| 전체          | (1,000) | 82                      | 11  | 7           | 100 | 11                   | 82  | 7  | 100 | 52         | 45     | 4  | 100 |
| <b>연령</b>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|
| 19-29세      | (175)   | 84                      | 6   | 10          | 100 | 9                    | 79  | 12 | 100 | 58         | 35     | 7  | 100 |
| 30-39세      | (173)   | 82                      | 14  | 4           | 100 | 10                   | 83  | 7  | 100 | 53         | 43     | 4  | 100 |
| 40-49세      | (203)   | 85                      | 10  | 5           | 100 | 10                   | 84  | 6  | 100 | 59         | 38     | 3  | 100 |
| 50-59세      | (201)   | 85                      | 8   | 6           | 100 | 9                    | 86  | 4  | 100 | 53         | 46     | 1  | 100 |
| 60세 이상      | (248)   | 76                      | 14  | 10          | 100 | 14                   | 80  | 7  | 100 | 39         | 57     | 4  | 100 |
| <b>학력</b>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|
| 고졸 이하       | (464)   | 80                      | 11  | 9           | 100 | 10                   | 82  | 8  | 100 | 47         | 48     | 5  | 100 |
| 대재 이상       | (536)   | 84                      | 10  | 6           | 100 | 11                   | 83  | 6  | 100 | 56         | 41     | 3  | 100 |
| <b>이념성향</b>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|
| 진보          | (319)   | 91                      | 6   | 3           | 100 | 8                    | 91  | 2  | 100 | 63         | 35     | 2  | 100 |
| 중도          | (390)   | 83                      | 10  | 7           | 100 | 10                   | 80  | 9  | 100 | 49         | 45     | 6  | 100 |
| 보수          | (247)   | 70                      | 19  | 12          | 100 | 15                   | 77  | 9  | 100 | 41         | 57     | 2  | 100 |
| 모름          | (43)    | 81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14          | 100 | 9                    | 72  | 19 | 100 | 56         | 37     | 7  | 100 |

**BTS 일본 방송 출연  
취소는 트집 잡기**

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이 2017년 착용했던 원폭 티셔츠(광복티셔츠)를 문제 삼아 방송 출연을 취소 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81%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.

**Q** 최근 일본에서는 2017년 방탄소년단이 착용했던 ‘원폭 티셔츠(광복티셔츠)’ 를 문제 삼아 방탄소년단의 일본방송 출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N=1,000,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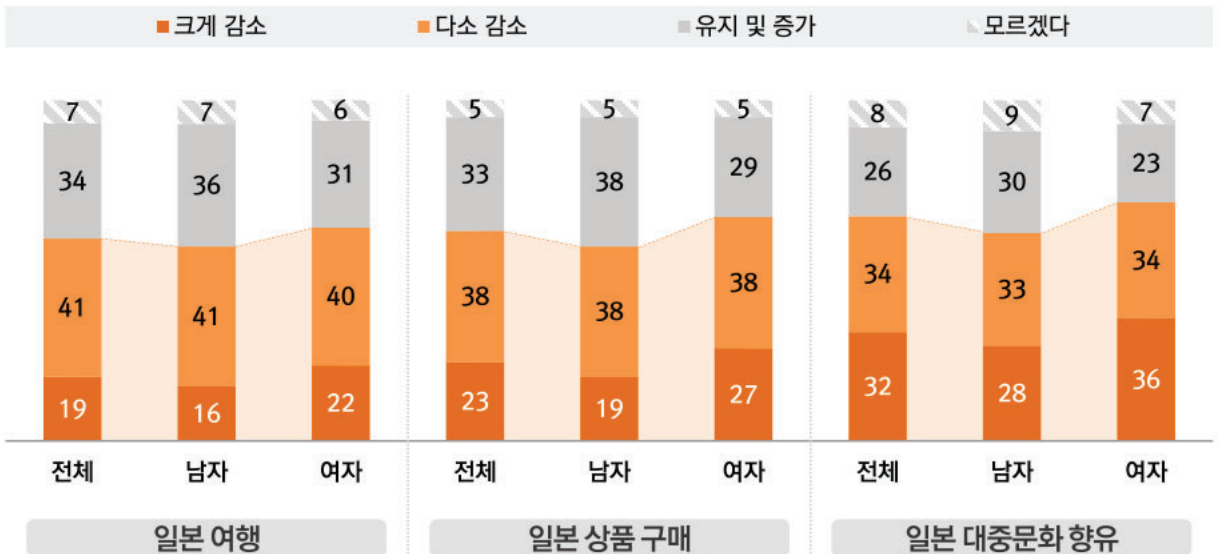


**우리 국민의  
일본 여행이나 제품구매,  
대중문화 이용 의향도 줄어**

최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, 응답자의 66%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 향유가 줄어들 것(크게 줄어들 것이다+다소 줄어들 것이다) 이라고 답했다. 일본 여행이나 일본제품 구매가 줄어들 것(크게 줄어들 것이다+다소 줄어들 것이다) 이라는 응답도 각각 60%, 61%로 나타났다. 대중문화 이용이나 일본상품 구매, 일본 여행이 줄어들 것 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일본의 대응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Q** 최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 다음 각 항목별로 선생님의 태도나 인식에 변화가 있습니까?

(N=1,000,%)





# 01

## 현안조사 3) 한일 관계 전망과 과제

### 향후 한일관계 전망 어두워

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'지금 정도를 유지할 것'이라는 응답이 65%으로 가장 높고, 이어서 '나빠질 것'(25%), '좋아질 것'(7%) 순으로 현상유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.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 관계를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###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와 독도문제 해결이 급선무

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해결이 압도적 이었다. '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해결'(76%), '독도문제 해결'(75%), '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'(73%)이 70% 이상으로, 다음으로 높은 '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향상'(19%)보다 세 배 이상 높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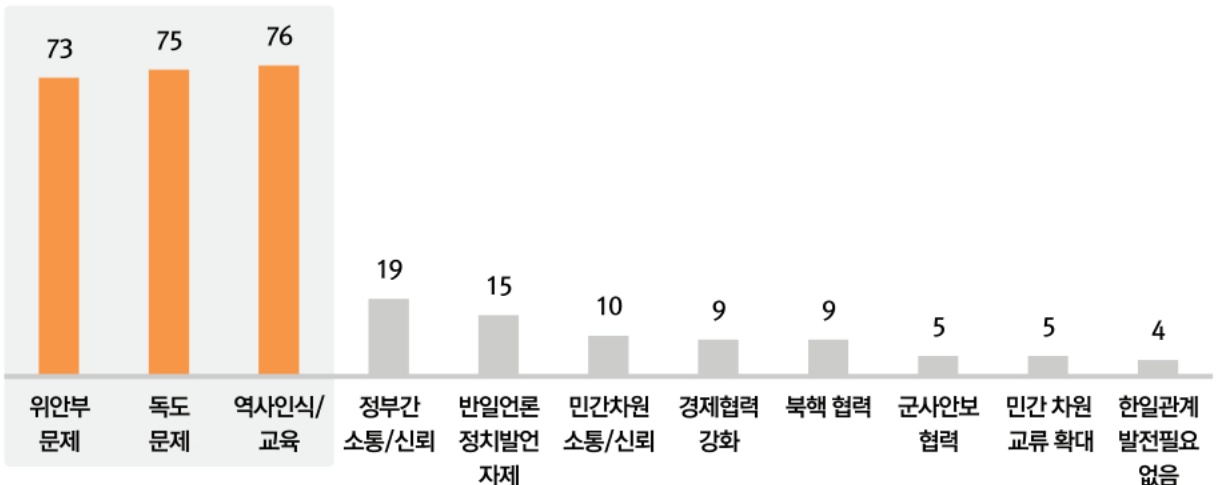
**Q** 향후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,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
(N=1,000, %)



**Q**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,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중요한 것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

(N=1,0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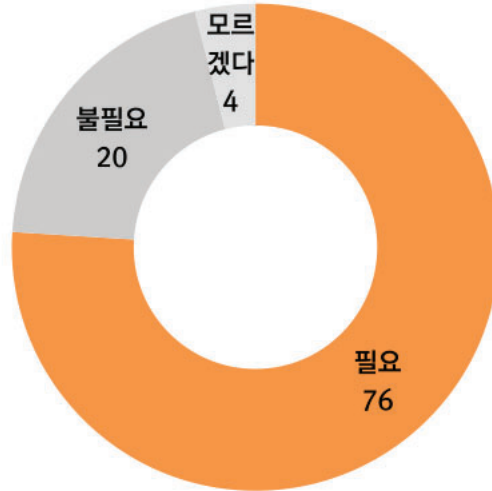


**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 
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 
공동대응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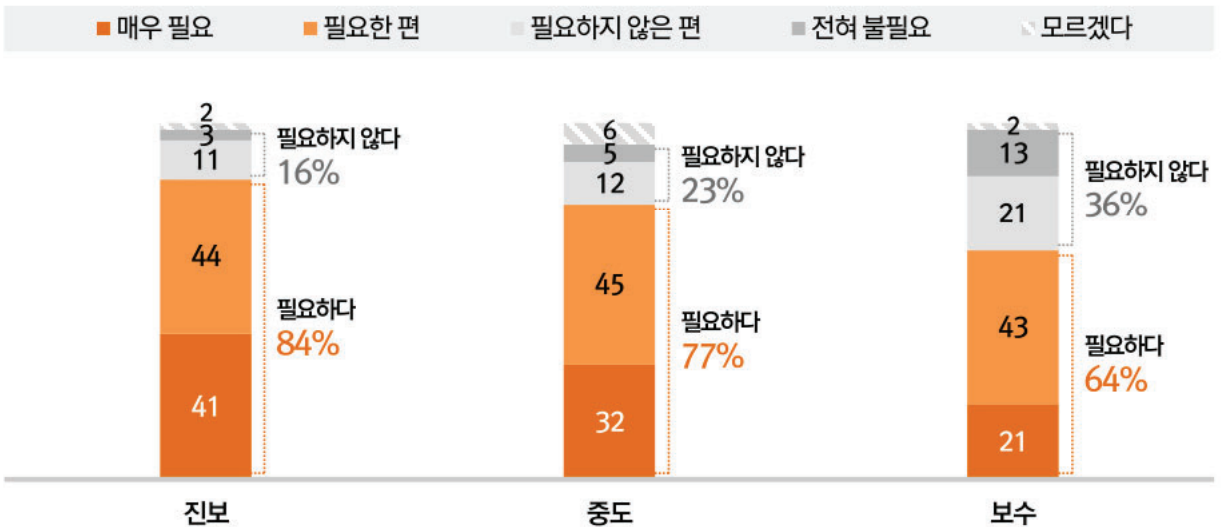
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본 역사 문제 대응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'필요하다(매우+필요한 편)'고 응답했다.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보수 성향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0% 이상으로, 이념을 떠나 남북 공동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Q 강제징용 배상 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**

(N=1,000, %)



(N=1,000, %)



**담당자 최선아 과장**

전화 | 02-3014-1015

e-mail | choisa@hrc.co.kr

여론 속의

# 여輿論論

CHAPTER

02

국정지표

# 02

## 국정지표 1) 대통령 국정운영평가

###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55%

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5%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, 40%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7%포인트(62% → 55%) 하락하였다. 지난 달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.

### 지난달 대비 7%p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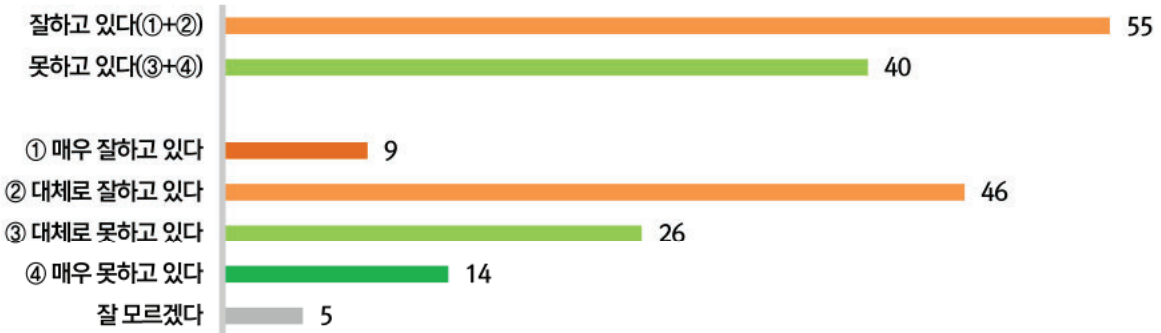
연령대별로는 20대 49%, 30대 69%, 40대 69%, 50대 52%, 60세 이상 38%이며, 20대와 60세 이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.

지역별로는 서울 56%, 인천/경기 52%, 대전/세종/충청 54%, 광주/전라 83%, 대구/경북 47%, 부산/울산/경남 42%이며, 지난달 대비 부산/울산/경남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.

이념성향별로는, 진보 77%, 중도 53%, 보수 30%로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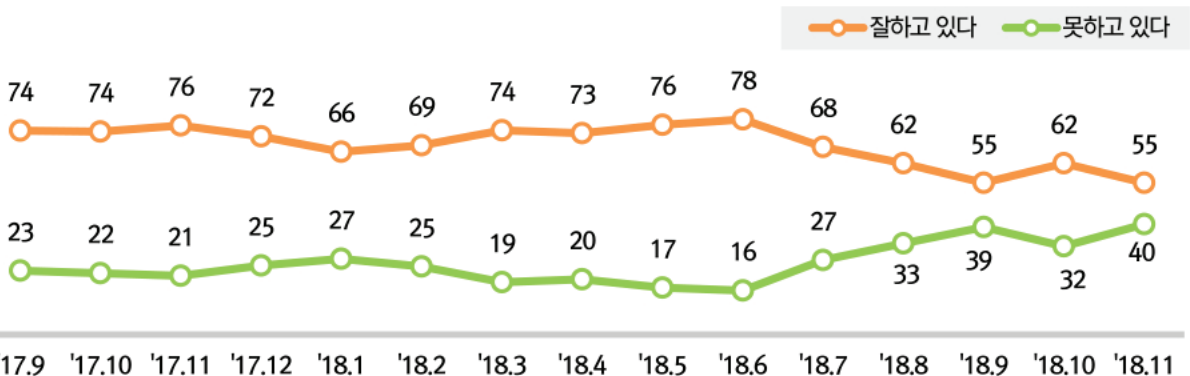
### 잘하고 있다 55%, 못하고 있다 40%

(N=1,000, %)



### 지난달 대비 7%포인트 하락

(N=1,000, %)



**연령대, 거주지역,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**

지난달 대비 2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(N=1,000, %, %p)

|        | '18.1 | 2  | 3  | 4  | 5  | 6  | 7  | 8  | 9  | 10 | 11 | 전월 대비 |
|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전체     | 66    | 69 | 74 | 73 | 76 | 78 | 68 | 62 | 55 | 62 | 55 | -7    |
| 19-29세 | 67    | 74 | 73 | 78 | 81 | 80 | 70 | 65 | 57 | 62 | 49 | -13   |
| 30-39세 | 77    | 81 | 81 | 87 | 85 | 85 | 72 | 68 | 63 | 72 | 69 | -3    |
| 40-49세 | 78    | 77 | 88 | 82 | 83 | 87 | 76 | 71 | 65 | 72 | 69 | -3    |
| 50-59세 | 66    | 71 | 76 | 70 | 80 | 72 | 68 | 64 | 58 | 60 | 52 | -8    |
| 60세 이상 | 48    | 47 | 58 | 56 | 59 | 70 | 55 | 48 | 39 | 50 | 38 | -12   |

지난달 대비 부산/울산/경남에서 하락폭 가장 커 (N=1,000, %, %p)

|          | '18.1 | 2  | 3  | 4  | 5  | 6  | 7  | 8  | 9  | 10 | 11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전체       | 66    | 69 | 74 | 73 | 76 | 78 | 68 | 62 | 55 | 62 | 55 | -7    |
| 서울       | 60    | 68 | 74 | 69 | 76 | 78 | 69 | 57 | 57 | 68 | 56 | -12   |
| 인천/경기    | 68    | 71 | 76 | 77 | 79 | 79 | 69 | 67 | 53 | 63 | 52 | -11   |
| 대전/세종/충청 | 72    | 66 | 73 | 73 | 74 | 74 | 67 | 56 | 52 | 55 | 54 | -1    |
| 광주/전라    | 84    | 85 | 90 | 87 | 91 | 91 | 86 | 84 | 83 | 78 | 83 | +5    |
| 대구/경북    | 60    | 62 | 59 | 60 | 62 | 69 | 50 | 50 | 47 | 45 | 47 | +2    |
| 부산/울산/경남 | 62    | 59 | 71 | 71 | 76 | 77 | 62 | 57 | 50 | 62 | 42 | -20   |

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(N=1,000, %, %p)

|    | '18.1 | 2  | 3  | 4  | 5  | 6  | 7  | 8  | 9  | 10 | 11 | 전월 대비 |
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전체 | 66    | 69 | 74 | 73 | 76 | 78 | 68 | 62 | 55 | 62 | 55 | -7    |
| 진보 | 88    | 88 | 93 | 93 | 94 | 95 | 93 | 87 | 81 | 81 | 77 | -4    |
| 중도 | 70    | 73 | 74 | 73 | 81 | 76 | 69 | 55 | 53 | 64 | 53 | -11   |
| 보수 | 41    | 47 | 51 | 48 | 50 | 59 | 36 | 41 | 31 | 37 | 30 | -7    |



# 02

## 국정지표 2) 대통령 리더십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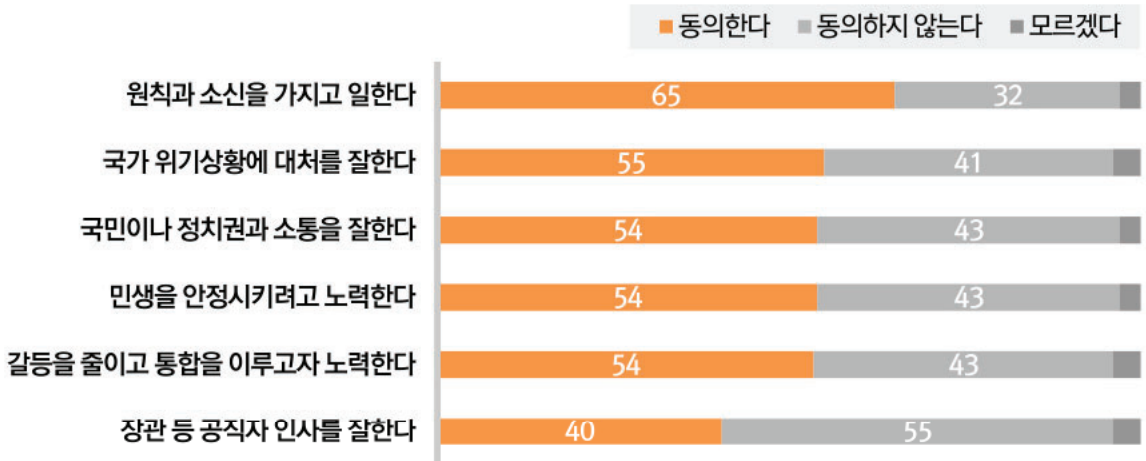
### 리더십 관련 모든 차원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

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,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65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위기상황대처(55%), 소통(54%), 민생 안정(54%), 통합 노력(54%), 공직인사(40%) 순이었다.

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,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였다. 지난 달을 제외하면 6월부터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.

###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,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

(N=1,000, %)



###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하락

(N=1,000, 동의한다%, %p)

|                       | '18.1 | 2  | 3  | 4  | 5  | 6  | 7  | 8  | 9  | 10 | 11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      | 72    | 72 | 78 | 74 | 78 | 81 | 75 | 70 | 64 | 69 | 65 | -4    |
|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     | 59    | 62 | 70 | 71 | 73 | 73 | 65 | 60 | 58 | 62 | 55 | -7    |
|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    | 69    | 68 | 72 | 71 | 72 | 74 | 67 | 64 | 58 | 60 | 54 | -6    |
|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      | 73    | 69 | 71 | 73 | 71 | 69 | 66 | 63 | 58 | 60 | 54 | -6    |
|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| 62    | 62 | 66 | 68 | 67 | 68 | 64 | 61 | 55 | 59 | 54 | -5    |
|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     | 52    | 51 | 57 | 51 | 55 | 59 | 52 | 48 | 42 | 45 | 40 | -5    |

# 02

## 국정지표 3) 정책 평가

**대북 정책이 가장 높고,**

주요 10개 정책별로 실행에 대한 평가(잘하고 있는지 여부)를 실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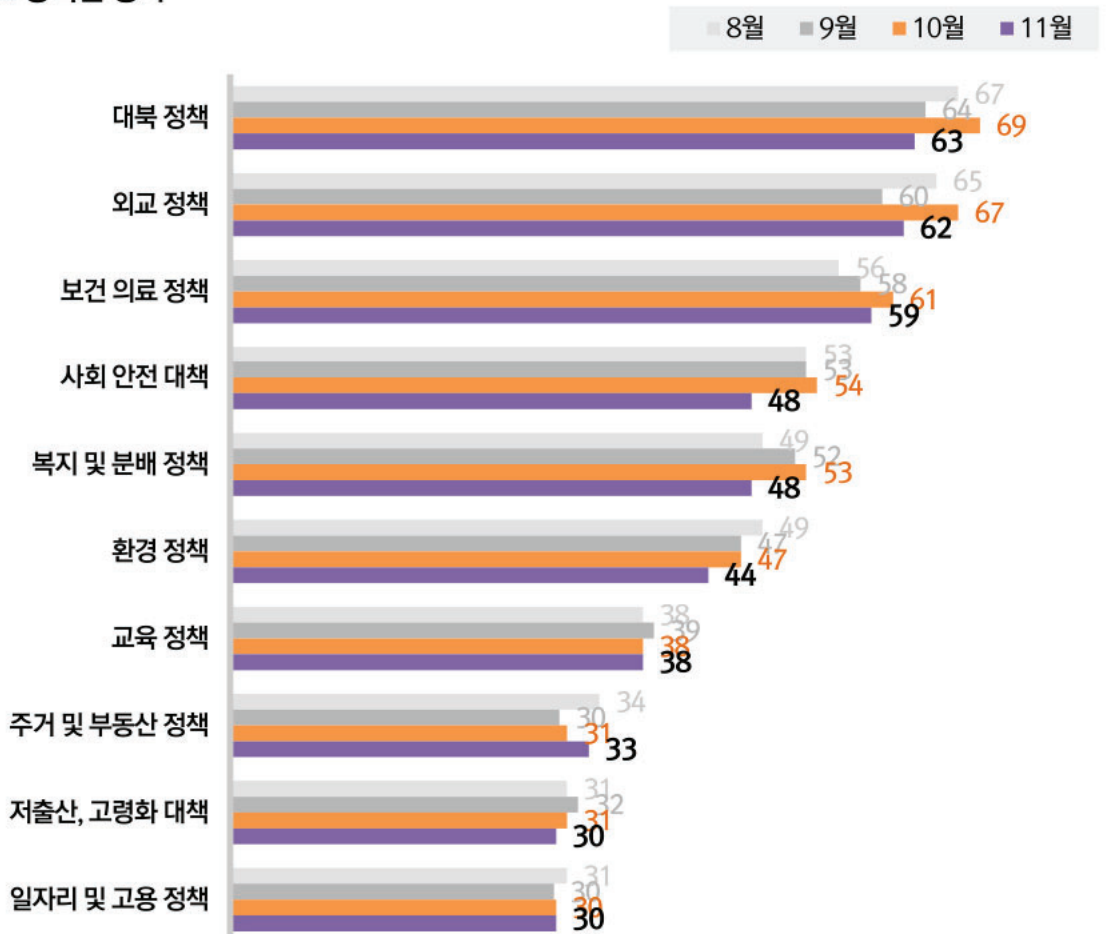
**일자리 고용 정책이  
가장 낮아**

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정책은 '대북 정책'(63%)이었고, 다음으로 '외교 정책'(62%), '보건 의료 정책'(59%), '사회 안전 대책'(48%), '복지 및 분배 정책'(48%), '환경 정책'(44%), '교육 정책'(38%), '주거 및 부동산 정책'(33%), '저출산, 고령화 대책'(30%), '일자리 및 고용 정책'(30%) 등의 순이었다.

지난 달 대비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였다.

### 10개 주요 정책별 평가

(N=1,000, 잘하고 있다%)



# 02

## 국정지표 4) 국가 경제 인식

**국가경제인식지수**  
**-44**

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,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(-100과 100사이의 값)하였으며,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(Gallup's U.S. Economic Confidence Index)를 참고하였다.

**지난달 대비**  
**7포인트 하락**

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-44로 지난달(-37) 대비 7포인트 하락하였다. 5월 이후 지난 달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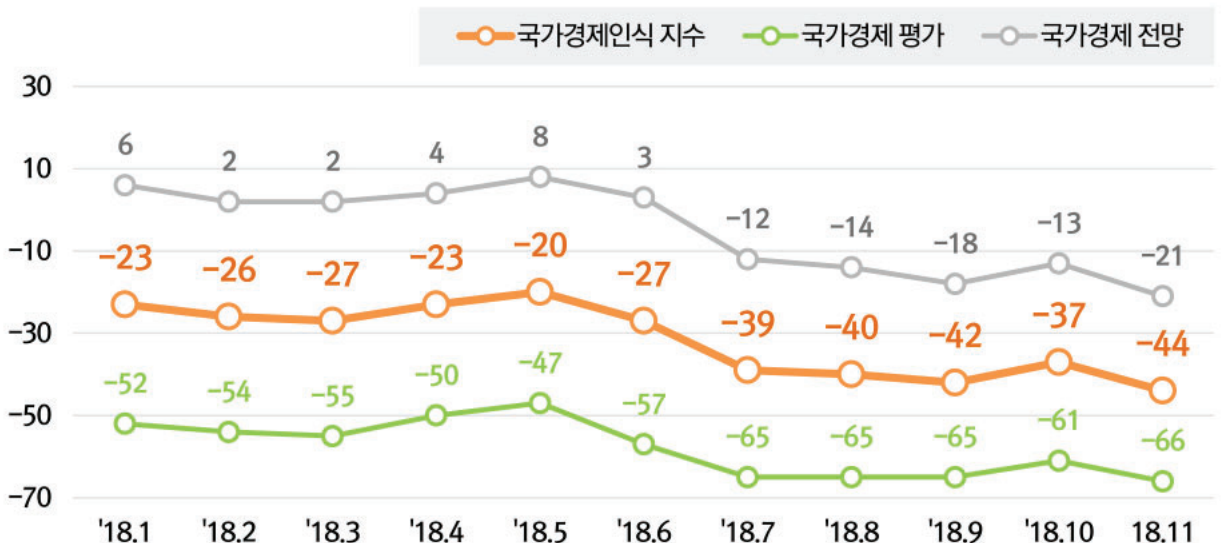
###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

(N=1,000)

|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        | 좋다 (a)     |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| 나쁘다 (b)    | 모르겠다 | 계    | 좋다나쁘다 (a-b)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  | 24%         | 71%        | 1%   | 100% |                 |
|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        | 나아질 것이다(c) |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 | 나빠질 것이다(d) | 모르겠다 | 계    | 나아질것-나빠질것 (c-d) |
|                      | 24%        | 29%         | 45%        | 2%   | 100% |                 |
| 국가경제인식(지수): A와 B의 평균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-44             |

###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5포인트 상승

(N=1,000, 포인트)



## 연령대, 거주지역, 직업별 국가 '경제' 인식지수 추이

## 지난달 대비 2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    | -23   | -26 | -27 | -23 | -20 | -27 | -39 | -40 | -42 | -37 | -44 | -7    |
| 19-29세 | -25   | -16 | -20 | -16 | -20 | -27 | -26 | -39 | -35 | -29 | -42 | -13   |
| 30-39세 | -12   | -20 | -17 | -8  | -9  | -19 | -33 | -30 | -34 | -27 | -30 | -3    |
| 40-49세 | -12   | -13 | -16 | -23 | -7  | -11 | -34 | -32 | -34 | -22 | -33 | -11   |
| 50-59세 | -26   | -29 | -30 | -30 | -20 | -36 | -44 | -43 | -40 | -47 | -48 | -1    |
| 60세 이상 | -36   | -46 | -45 | -34 | -40 | -40 | -52 | -53 | -59 | -54 | -63 | -9    |

## 지난달 대비 수도권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  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      | -23   | -26 | -27 | -23 | -20 | -27 | -39 | -40 | -42 | -37 | -44 | -7    |
| 서울       | -25   | -25 | -28 | -28 | -17 | -35 | -35 | -48 | -46 | -33 | -44 | -11   |
| 인천/경기    | -25   | -27 | -22 | -20 | -20 | -26 | -39 | -34 | -41 | -37 | -49 | -12   |
| 대전/세종/충청 | -22   | -31 | -23 | -22 | -30 | -18 | -35 | -41 | -35 | -38 | -42 | -4    |
| 광주/전라    | -4    | -7  | 2   | -1  | +3  | +3  | -15 | -20 | -13 | -16 | -23 | -7    |
| 대구/경북    | -32   | -31 | -49 | -38 | -33 | -38 | -50 | -58 | -55 | -53 | -51 | +2    |
| 부산/울산/경남 | -22   | -31 | -44 | -27 | -23 | -39 | -54 | -46 | -49 | -43 | -50 | -7    |

## 지난달 대비 판매/영업/서비스직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   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       | -23   | -26 | -27 | -23 | -20 | -27 | -39 | -40 | -42 | -37 | -44 | -7    |
| 자영업       | -31   | -35 | -37 | -41 | -37 | -32 | -51 | -49 | -62 | -47 | -52 | -5    |
| 판매/영업/서비스 | -24   | -16 | -23 | -21 | -13 | -38 | -32 | -38 | -35 | -19 | -39 | -20   |
| 생산/기능/노무  | -13   | -22 | -12 | -22 | -13 | -16 | -39 | -31 | -33 | -34 | -38 | -4    |
| 사무/관리/전문  | -19   | -22 | -15 | -6  | -13 | -21 | -38 | -39 | -33 | -34 | -47 | -13   |
| 주부        | -32   | -35 | -31 | -29 | -24 | -35 | -45 | -45 | -49 | -39 | -53 | -14   |
| 학생        | -10   | -11 | -30 | -26 | -21 | -31 | -34 | -40 | -50 | -25 | -36 | -11   |
| 무직/퇴직/기타  | -19   | -27 | -35 | -26 | -20 | -22 | -31 | -39 | -41 | -44 | -36 | +8    |



# 02

## 국정지표 5) 국가안보 인식

**국가안보 인식지수  
+15**

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,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(-100과 100사이의 값)했다.

**지난달 대비  
14포인트 하락**

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+15로 지난달(+29) 대비 14포인트 하락하였다. 6월 이후 하락세였던 안보 인식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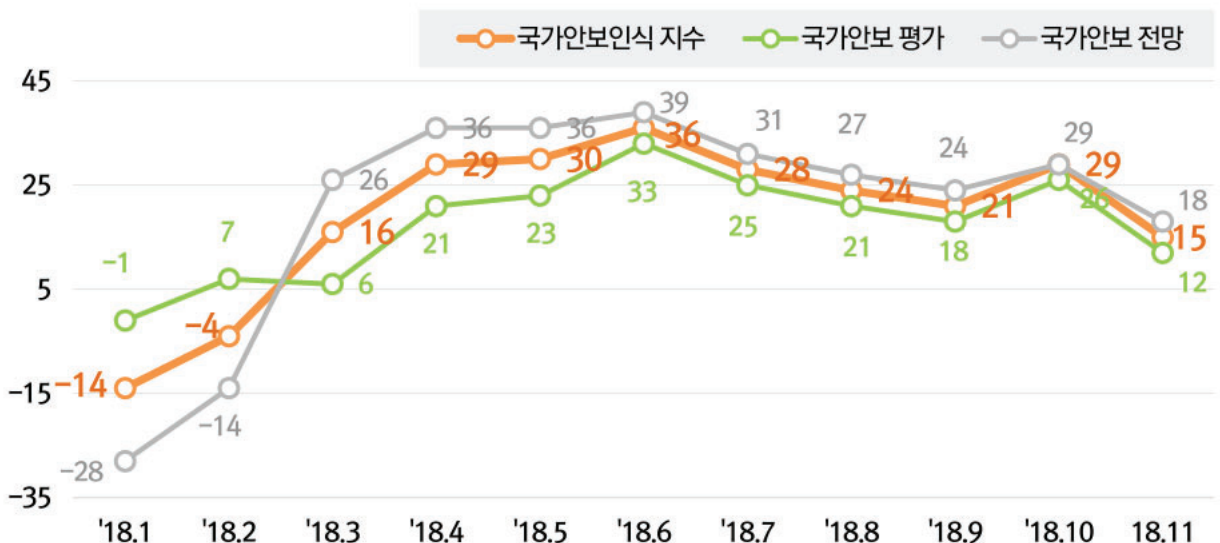
###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

(N=1,000)

|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        | 좋다 (a)     |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| 나쁘다 (b)    | 모르겠다 | 계    | 좋다-나쁘다 (a-b)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39%        | 32%         | 27%        | 2%   | 100% |                   |
|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        | 나아질 것이다(c) | 지금과비슷할 것이다  | 나빠질 것이다(d) | 모르겠다 | 계    | 나아질 것-나빠질 것 (c-d) |
|                      | 43%        | 29%         | 25%        | 3%   | 100% |                   |
| 국가안보인식(지수): A와 B의 평균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| +15               |

###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4포인트 하락

(N=1,000, 포인트)



**연령대, 거주지역, 이념성향별 국가 '안보' 인식지수 추이**

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    | -14   | -4  | +16 | +29 | +30 | +36 | +28 | +24 | +21 | +29 | +15 | -14   |
| 19-29세 | -8    | +10 | +18 | +35 | +30 | +28 | +36 | +28 | +18 | +24 | +14 | -10   |
| 30-39세 | +2    | +9  | +25 | +35 | +38 | +33 | +39 | +28 | +24 | +37 | +28 | -9    |
| 40-49세 | +3    | +10 | +36 | +36 | +43 | +58 | +46 | +41 | +39 | +50 | +36 | -14   |
| 50-59세 | -18   | -1  | +18 | +29 | +34 | +40 | +26 | +27 | +30 | +31 | +21 | -10   |
| 60세 이상 | -42   | -37 | -9  | +15 | +10 | +23 | +1  | +2  | -1  | +8  | -12 | -20   |

지난달 대비 인천/경기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  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      | -14   | -4  | +16 | +29 | +30 | +36 | +28 | +24 | +21 | +29 | +15 | -14   |
| 서울       | -24   | -10 | +15 | +29 | +31 | +34 | +33 | +21 | +22 | +33 | +27 | -5    |
| 인천/경기    | -14   | -3  | +23 | +35 | +31 | +38 | +28 | +29 | +22 | +34 | +6  | -28   |
| 대전/세종/충청 | -11   | -13 | +20 | +24 | +25 | +35 | +36 | +18 | +24 | +18 | +7  | -11   |
| 광주/전라    | +8    | +24 | +42 | +49 | +60 | +54 | +52 | +47 | +51 | +57 | +53 | -4    |
| 대구/경북    | -29   | -5  | -15 | +8  | +10 | +20 | +5  | +12 | +5  | +9  | +15 | +6    |
| 부산/울산/경남 | -11   | -9  | +4  | +23 | +30 | +33 | +14 | +19 | +12 | +19 | +1  | -18   |

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

(N=1,000, 포인트)

|    | '18.1 | 2   | 3   | 4   | 5   | 6   | 7   | 8   | 9   | 10  | 11  | 전월 대비 |
|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전체 | -14   | -4  | +16 | +29 | +30 | +36 | +28 | +24 | +21 | +29 | +15 | -14   |
| 진보 | +16   | +28 | +51 | +63 | +63 | +71 | +70 | +62 | +62 | +65 | +56 | -9    |
| 중도 | -10   | -6  | +11 | +22 | +32 | +29 | +27 | +15 | +15 | +27 | +8  | -19   |
| 보수 | -52   | -36 | -20 | -7  | -11 | -1  | -20 | -10 | -18 | -11 | -23 | -12   |

**담당자 오승호 차장**

전화 | 02-3014-0167  
e-mail | shoh@hrc.co.kr

여론속의

# 여輿論論

CHAPTER



03

조사개요

## 조사개요

| 구분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단      | •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표집틀      | • 한국리서치 MS 패널(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표집방법     | 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, 학력별,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표본크기     | • 1,00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표본오차     | 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$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방법     | • 웹조사(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중치 부여방식 | 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<br>(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응답율      | • 조사요청 8,465명, 조사참여 1,370명, 조사완료 1,000명<br>(요청대비 11.8%, 참여대비 73.0%, 유효참여자 대비 79.4%) |
| 조사일시     | • 2018년 11월 16일~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기관     | 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

여론속의

# 여輿론論

40 YEARS Hankook Research

